

Meritz 통신서비스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454-4863
jisoo.jeong@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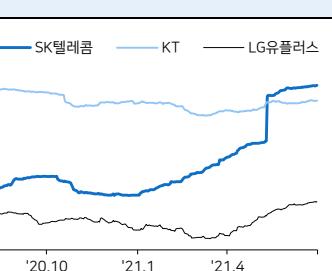
2021.7.5

1 주가 현황

	수익률(%)				PER(x)		PBR(x)		배당수익률(%)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
	1W	1M	3M	6M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KOSPI	-0.6	1.3	5.2	9.7	12.3	12.3	1.3	1.3	1.6	1.6	
통신업종	-2.5	-1.4	15.7	29.6	10.5	10.5	0.8	0.8	3.6	3.6	
SK텔레콤	-2.5	-0.6	13.3	34.4	11.0	8.6	0.9	0.9	3.3	3.4	
KT	-2.0	-4.2	15.2	33.6	9.9	8.9	0.6	0.5	4.7	5.0	
LG유플러스	-3.5	-1.0	22.8	27.4	9.6	8.5	0.8	0.8	3.4	3.6	
AT&T	1.2	0.0	-4.1	1.6	9.2	9.4	1.2	1.1	7.1	6.8	
Verizon	0.1	-0.9	-3.2	-3.9	11.0	10.9	3.0	2.6	4.5	4.6	
T-Mobile	0.7	2.8	14.6	8.5	63.0	42.6	2.7	2.5	0.0	0.0	
NTT	-0.6	-1.1	1.0	6.2	11.6	9.5	1.3	1.2	3.6	3.8	
KDDI	0.1	-6.6	-0.5	11.2	12.1	11.7	1.7	1.6	3.5	3.7	
Softbank	-1.5	-3.6	-20.2	-2.4	3.5	10.0	1.8	1.2	0.6	0.6	
China Mobile	-0.9	-1.1	-6.3	9.1	7.3	7.0	0.7	0.7	7.2	7.6	
China Unicom	0.0	-0.2	-4.8	-6.0	7.6	6.7	0.3	0.3	5.6	6.4	
China Telecom	5.9	17.1	5.9	37.8	8.8	8.5	0.5	0.5	6.1	6.7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2 업종 코멘트

전자 통합

7월 첫째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 대비 -1.9%p 수익률 기록하며 Underperform 2Q21 실적 발표 전 모멘텀의 부재로 통신 3사 주가는 지지부진한 흐름 지속 LG유플러스는 2025년 비통신 매출 비중 30% 달성을 목표를 제시하며 비통신 분야 사업 가속화 국내 기관은 통신 3사 순매도. 외국인은 SK텔레콤과 LGU+ 순매수, KT 순매도

전자 전망

금주는 특별한 이벤트가 부재 2Q21 통신 3사 실적은 5G 가입자 증가와 마케팅 경쟁 완화로 시장 컨센서스 부합/상회 전망 국내/해외 통신사들의 투자 확대로 2H21 국내 5G 통신장비 업체들의 전반적인 실적 개선 전망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동 강화로 글로벌 광섬유/광케이블 수요 회복 및 업황 터어리운드 전망

★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27	28	29	30	1	2	3
				과기정통부 '유료방송사 - PP 상생협의체' 3차 회의		

3 주간 뉴스

▶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2025년 비(非)통신 매출 30% 달성"

(전자신문)

- LG유플러스, 미디어와 IDC, 스마트모빌리티 등 비(非)통신 분야 매출 2025년 30%까지 확대 발표
- 같은 기간 고객 중심 디지털 혁신 기업으로 변신하며 신사업에 최적화한 조직개편도 단행할 방침
- 디즈니플러스 관련해서도 협상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출시 가시화
- ⇒ 이번 발표로 Pure telco 사업자였던 LG유플러스도 통신서비스 사업 구조 변화 트렌드에 동참
- ⇒ 하반기 통신주 주가는 자회사를 포함한 비통신 사업 부문의 성과가 중요 변수가 될 전망

▶ 로컬 5G 활성화, 초고주파+4.7GHz 동시 공급

(ZD Net Korea)

- 정부, 초고주파 대역인 28GHz 주파수와 함께 실 수요가 높은 6GHz 이하 대역 주파수 동시 공급 결정
- 5G 기술 환경과 국제적인 동향을 분석하고 5G 특화망에 적합한 주파수 대역 논의를 거친 결과
- 4.7GHz 대역은 기존 무선국 등과 주파수를 공동 사용하는 방식으로 10개 블록으로 나눠 공급
- ⇒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은 로컬5G의 특성을 반영해 5G 기술을 통한 B2B 산업 활성화를 겨냥
- ⇒ 향후 통신사 중심의 5G 산업은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홈 등 B2C 아닌 B2B 중심으로 확대될 전망

▶ KT 시즌 독립 계획보다 '연기'…부가 서비스 한계 넘어야

(아이뉴스24)

- 'KT 시즌', 독립법인 출범에 따른 법원 인가 문제로 당초 예상과는 달리 하반기 중 분사가 이뤄질 계획
- 앞서 KT는 분사를 위해 지니뮤직 주식 전략을 현물 출자해 지니뮤직 최대 주주를 'KT 시즌'으로 변경
- '시즌' 오리지널 누적 콘텐츠 수는 170여개. 2019년 대비 시청 횟수 169%, 시청 시간 261% 증가
- ⇒ KT는 올해 하반기 '시즌' 독립을 통해 본격적으로 미디어·콘텐츠 역량을 강화할 방침
- ⇒ OTT '시즌' IPTV '올레TV' 등 및 '스튜디오오지니' '스토리위즈'를 통해 강력한 콘텐츠 벤류체인을 확보

▶ 中 화웨이, 3조원 규모 말레이시아 5G 사업 스웨덴 에릭슨에 빼겼다

(조선비즈)

- 말레이시아 정부, 5G 이동통신망 공급 사업자로 중국의 화웨이 대신 에릭슨과 계약 체결
- 말레이시아 5G 망 공급 계약에는 화웨이, ZTE, 시스코, 노키아, 삼성 등 8개 공급업체들이 참여
- 이번 계약은 약 110억 링kit(약 2조 9,997억 원) 규모로 5년에 걸쳐 5G망 설치가 이뤄질 전망
- ⇒ 말레이시아 5G 계약에서의 중국 통신장비업체 제외는 타 국가들의 5G 계약에 변수가 될 전망
- ⇒ 또한 바이든 정부 체제 아래에서도 미 정부의 중국 5G 통신장비에 대한 규제는 지속될 전망

▶ 5G 코어 네트워크도 퍼블릭 클라우드로...MS, AT&T와 빅딜

(디지털데일리)

- 마이크로소프트, AT&T의 5G 코어 네트워크로 자사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 플랫폼 투입
- MS는 그동안 통신사업자용 클라우드 상품을 개발해왔으며 AT&T는 첫 번째 주요 성과
- 또한 MS는 통신사업자용 클라우드 상품 개발을 위해 AT&T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지적재산권 구입
- ⇒ MS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시 통신사들의 애플리케이션 구동 및 데이터 분석 비용 절감 가능
- ⇒ AT&T는 퍼블릭 클라우드 업체로 바꾸는 것이 5G 대량 사용 및 기능 개발에 유리하다고 발표

▶ 티빙, 네이버 400억원 투자 유치…오리지널 경쟁력 강화

(전자신문)

- 네이버, 티빙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보통주 신주 26만 1817주를 발행하는 지분투자를 단행
- 총 400억원 규모로 이번 투자로 네이버는 보통주 기준 CJ ENM에 이어 티빙 2대 주주로 등극
- 티빙은 네이버 투자를 바탕으로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고 초격차 역량을 확보
- ⇒ 이번 투자로 인해 티빙 안에서 콘텐츠 기획·제작 역량에 강점을 가진 CJ ENM과 웹툰·웹소설 등 다양한 원작 지식재산(IP)을 보유한 네이버와의 시너지를 극대화될 예정

4 주요 지표

(집약달력)	종가 (통화)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한국	SK텔레콤	318,500	20.3	17.3	18.0	1.4	1.5	1.9	2.4	5.1	5.3	5.8	5.6	8.9	10.4
	KT	31,800	7.3	21.8	22.4	1.2	1.3	0.7	0.8	4.5	4.6	3.0	2.9	5.9	6.4
	LG유플러스	15,100	5.8	12.4	13.0	0.9	1.0	0.6	0.7	3.1	3.2	3.8	3.6	9.0	9.5
미국	AT&T	29.2	208.7	173.5	163.4	33.4	33.3	22.5	21.1	53.6	52.2	7.4	7.6	12.7	11.7
	Verizon	56.4	233.7	133.9	136.3	31.7	32.8	20.9	21.3	48.6	50.0	7.9	7.7	28.2	25.5
	T-Mobile	146.3	182.4	79.8	81.8	7.1	9.6	3.0	4.4	27.1	28.1	9.5	9.1	4.8	6.2
일본	NTT	2,881	101.0	108.2	109.0	15.1	15.7	8.4	9.8	29.0	29.5	6.0	5.8	10.8	13.8
	KDDI	3,444	71.4	48.5	48.7	9.6	9.6	6.0	6.0	16.3	16.3	5.1	5.0	14.5	13.5
	Softbank	7,812	121.0	50.9	53.4	49.9	17.0	37.1	11.2	50.0	34.0	5.2	7.6	39.3	10.2
중국	China Mobile	47.9	126.1	124.0	129.2	18.5	18.9	17.3	17.9	45.2	46.5	1.5	1.5	9.5	9.4
	China Unicom	4.2	16.5	49.4	51.9	2.1	2.4	2.2	2.5	15.2	15.9	0.9	0.9	4.3	4.8
	China Telecom	2.9	30.0	64.6	67.6	4.9	5.1	3.6	3.9	19.4	20.2	2.1	2.0	6.2	6.3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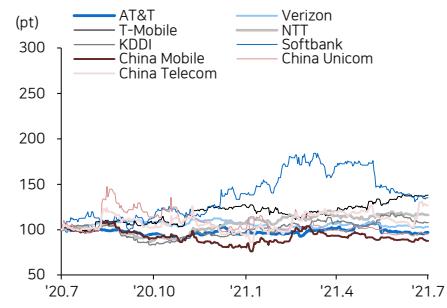
5 주요 차트

최근 1년 국내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자료: WiseFn

최근 1년 해외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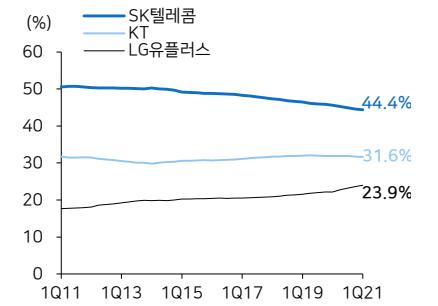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통신 3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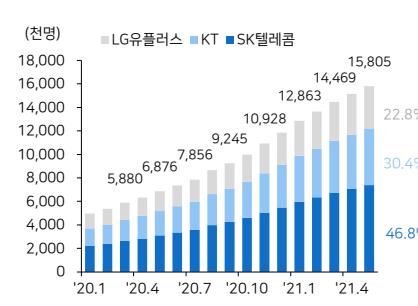
자료: WiseFn

통신 3사 이동전화 점유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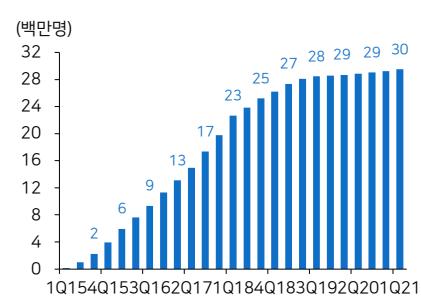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5G 가입자 및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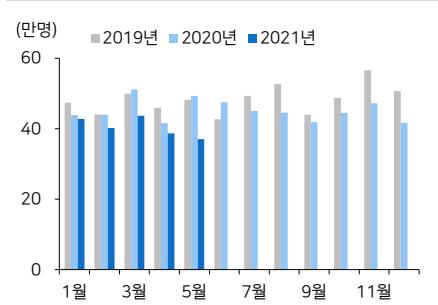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택약정회원 가입자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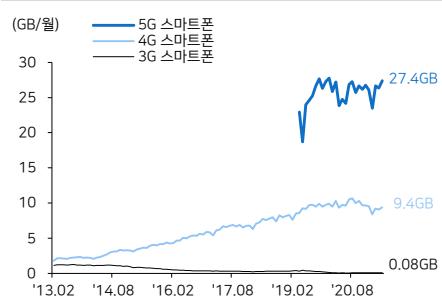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번호이동시장(MNP)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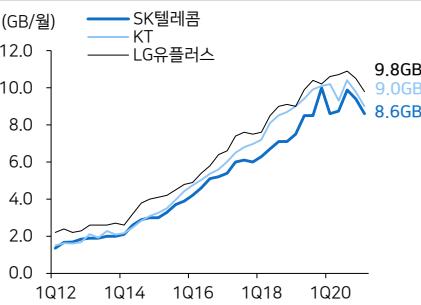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전화 단말기별 트래픽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LTE 가입자 데이터 사용량



자료: 각 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히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